

#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 군산시, 세부계획 수립 인증 신청 주민공청회

군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북도와 함께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군산시와 전북도 관계자 및 지질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의 발표 후 공청회 참석자와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 오창환 전북대학교수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국가지질공원제도 소개'와 최옥곤 자연환경연구소 박사의 '국내외 지질공원 운영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면서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울릉도·독도, 한탄·임진강, 전북서해안권 등 총 10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군산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지질자원 발굴 및 가치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지질전문가를 채용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필수 요건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말도습곡구조, 방축도 독립문바위, 광대도 책바위, 얼룩말바위, 무녀도 백악기 유문암, 산북동 백악기 공룡화석 등 지역 내 지질 자원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6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경우, 해당 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없다"며 "지질공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27일 오전 10시경 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2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이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이용 불편함 및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임형택 의원이 익산시 광역상수도 검토 연구용역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및 쓰레기봉투 가격, 하수도 사용료 일관성 없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정부, 전

라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의 암발병 원인에 대해 단 하나의 개연성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하게 원인을 밝혀 주민들의 건강 및 생계에 대한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각 정당대표 등에 보내진다. 조규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시민행복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심사했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과 마음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민간자율기구 '농업회의소' 성황리 출범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지난 2년여 간의 창립준비를 마치고 27일 영등동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창립총회와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450여명의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모여 농업회의소 정관과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초

대 회장 및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과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어진 기념행사는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익산시의회,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농업인단체 및 농업회의소 회원 등 50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해 농업회의소 창립을 축하하고 기념

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회의소는 농업 농촌의 위기감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대변하는 농업계의 민간 자율기구와 익산시의 농정 파트너로서 정책자문과 조사 연구, 교육 훈련, 공익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계획

이다. 우선적으로 분과위원회 및 읍면동회의소를 통하여 농업인의 농정수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농민정책분과, 식량분과, 농촌활력분과, 원예특작분과, 농산물유통분과, 식품가공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청년농업인분과로 9개 분과로 구성되며 도시소비자분과는 특별위원회로 별도 운영하게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 민간위탁기관 선정

군산시가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복합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청년지원과 예비창업자 전담 프로그램 등 청년 복합 서비스 공간인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복합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창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대상 활동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위탁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9개월이며 성과평가 등에 따라 1회 3년 이내 재계약이 가능하며 운영예산은 8억원이다. 선정된 기관은 청년 취업·진로·창업 관련프로그램, 예비창업자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활성화사업을 군산시 청년 및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실시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지역화폐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익산시는 28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다양한 단체 및 학계 교수 등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웅지세무대학교 이재민 교수는 국내의 지역화폐 사례를 토대로 공동체

복원과 지역경제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현철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화폐의 역할과 바람직한 지역화폐의 설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두 발제를 토대로 좌장 원광대학교 원도연 교수와 한국과학문화연구원 소현주 박사, 군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규욱 대표, 익산희망연대 이진홍 사무국장,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본 정책토론회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실제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가능한 설계 방안과 그 선행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혀 익산지역에 맞는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보건소, 레지오넬라균 예방관리 전주검사 나서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가 전국적 증가추세의 레지오넬라균 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주검사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내 수도꼭지 냉·온수, 수도물저수조, 중앙온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기준수치가 초과된 시설에

청소와 소독조치 및 예방지도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 후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수도꼭지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된다.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전신피로감, 호흡곤란 등이며 때로는 마른기침, 복통, 설사도 동반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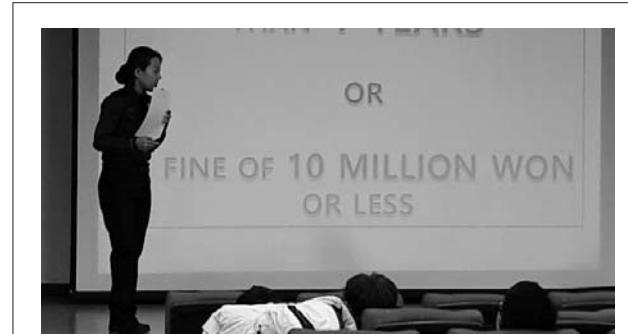
수 있다. 특히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 질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방치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철저한 환경관리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방문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농협은행 익산지부, 카드 적립금 시에 전달

### 적립금 1억3500만원

익산시는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이종찬 시지부장)로부터 지난해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금 1억3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협약 체결에 따라 지난해 1년 간 익산시청 법인카드와 공무원 복지카드, 사회단체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실적 대비 0.1~1.0% 비율로 적립된 기금으로 익산시지부는 매년 전년도 적립

된 기금을 시에 전달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신용카드 집행이 가능한 세출예산에 대해 법인 및 보조금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카드 사용 활성화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뿐 아니라 시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도 시민과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군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안전예방교육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 국제교류교육원은 지난 28일 한국어연수과정 신입생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어연수과정생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군산경찰서와 협력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교육,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현재 군산대학교에는 13개국 약 440여명의 다국적 유학생이 수학 중에 있으며 학생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유학생 안전교육 외에도 한가위 한미당, 문화답방 및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